

# 창문 앞 공동묘지...입주 예정자들 분통

## 해남서 신축아파트 인접 묘 100기 이전 안돼 공사 서두른 탓 균열·누수 등 곳곳 하자까지

입주가 임박한 해남의 한 신축 아파트 인접 공동묘지가 약속과 달리 이전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서두른 탓에 곳곳에서 하자까지 발생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해남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위탁사인 더 베스트와 시행사인 한 국토지신탁은 지난 2016년 12월 해남읍 해리 지역에 38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에 착수했다.

해남에서는 가장 높은 분양가를 자랑하는 이 아파트는 84㎡ 267세대와 116㎡ 113세대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분양 당시 약속과 달리 아파트 인접 공동묘지가 이전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청약 당시 분양 대행사는 입주 시까지 주변 200기의 묘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100여 기의 묘가 그대로 남아 있다.

분양 홍보물에도 공동묘지 부지는 철저히 근락지와 산책로 조성이라고 적시돼 있다.

시행사측은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협의 과정이 필요한 유언고 묘 30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묘를 모두 연말까지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묘 이전이 약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전비의 예치금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비상대책위 사무국장인 A씨는 "입주 후에는 묘 이전 작업이 더디게 진행될 것 같아 예치금이나 문서로 약속을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시행사측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다"면서 "묘지 이장비를 놓고도 시행사는 이미 지불했다고 하나, 위탁사는 시공사에 줬다고 하고 시공사는 받지 못했다고 하는 등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부지 내 있던 분묘들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이전해 분묘기권권을 가진 사람들의 반발로 공사가 수개월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합의를 봤으나 현재도 묘지 훼손을 놓고 7명과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공사 중단에 따른 공백을 메우려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 여러 곳에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사용승인 신청 후 해남군이 실시한 사전 점검에서는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벽면과 천정 등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지하층에서 누수도 발생했다. 또 각 세대의 창 감금장치 불량과 창문 상하단 유격의 차이가 확인됐고, 외벽 두께가 규격에 맞지 않으며 철근 휘어짐 현상도 지적됐다.

아파트 입구 도로의 인도가 미설치돼 추가 공사에 들어갔으며,



해남의 한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임박한 가운데, 분양 당시 약속과 달리 아파트 인접 공동묘지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본 공동묘지 모습.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가 단지내 들어가는 데 애를 먹었다.

시공사측은 "사전 점검중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일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입주 후에도 3~6개월 정도는 계속 상주하면서 하자 민원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사용승인 신청이 있었으나 여러 하자가 발견돼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현재 하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시공사측이 제시한 입주 예정일인 9월30일까지는 사용승인을 내주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코스모스 꽃길 따라 29일 오전 경남 거창군의 대표 축제인 '2019년 거창한마당 대축제' 4일째 날 '자전거 투어 창포원 소풍' 행사 참가자들이 거창 스포츠파크를 출발해 거창창포원으로 가는 자전거 길을 달리고 있다.

## 광주·전남 학교서 최근 3년 '몰카' 범죄 17건 발생

광주와 전남지역 학교에서 최근 3년간 '몰카' 범죄가 1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신고된 교내 몰카

범죄 건수는 374건이다.

2016년 86건에서 2018년에 173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지역 학교에서는 2016년 2건, 2017년 4건, 2018년 5건 등 총 11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전남은 2016년 1건, 2017년 1건, 2018

년 4건 등 6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어릴 때부터 몰카가 중대한 범죄라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광주·전남 온열질환자 6년간 1489명

최근 6년여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148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1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최근까지 온열질환자는 1만167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99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2014년 19명, 2015년 55명, 2016년 91명, 2017년 72명, 2018년 118명, 2019년 43명 등 39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전남은 2014년 69명, 2015년 120명, 2016년 187명, 2017년 195명, 2018년 322명, 2019년 198명 등 1091명이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온열질환으로 인해 숨진 사람은 광주에서는 5명, 전남에서는 10명이었다.



## 이슈 판결

### 수치심 유발 발언 등 정서적 학대 혐의 교사 2명 '무죄'

법원 "불쾌감·모욕감 주는 언행 정서적 학대 해당 안돼"

법원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광주지역 고교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광주지역 고교 교사 A씨(47)와 B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의 한 고교에서 성적표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학생의 교복 단추가 풀려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남자 친구가 좋아하니'라고 말하거나 '나시티가 비친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스투스'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2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여자가 뒤에 안았는데 느낌이 안났다', '대학교 때 여학생이 뒤에 앉았는데 가슴이 느껴지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학생들에게 유행력이 동반되지 않고, 단지 부적절한 성적 발언 등만이 이뤄진 경우로 이것이 학생들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가학적인 성격이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판단이 곤란하다"며 "반면 학생에 대한 훈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사는 학교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무턱대고 정서적 학대행위로 의율할 경우 도의적 비난은 물론 형사책임 등까지 질 수 있는 만큼 적용에 매우 엄격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공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임신기부터 출생후까지,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